

경제 한파·정국 혼란에도 광주 구세군 냄비 ‘펼 펼’

6-24일 총장로·신세계백·롯데아울렛 수완점 등 3곳서 진행 최근 5년 평균 웃돈 2천200여만원 모여...“96년째 선한 마음”

올 한해 경기침체가 지속된 데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얼어붙었으나, 소외 이웃을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는 펼 펼 끊었다.

25일 구세군에 따르면 '세상을 밝히는 빛(Light of Love)'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자선냄비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자선냄비 모금 기간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광주의 경우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총장로 우체국 ▲광주 신세계백화점 ▲롯데아울렛 광주 수완점 등 3곳에서 이뤄졌다.

자선냄비 모금액은 ▲총장로 우체국 95만원 이상 ▲광주 신세계백화점 1천 179만원 이상 ▲롯데아울렛 광주 수완점 187만원 이상 등 총 2천2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잠정 집계된 모금액은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최근 5년 평균 1천824만여원은 웃돌았다. 연도별 모금액은 ▲2019년 2천231만원 ▲2020년 1천197만원 ▲2021년 1천306만원 ▲2022년 1천991만원 ▲2023년 2천397만원이다.

모금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했다는 구세군 관계자의 설명대로 전날 오후 1시께 광주 동구 총장로 우체국 앞 자선냄비에는 고사리 같은 손길부터 굳은 살이 겨겨이 박힌 이들과 온정 나눔이 잇따랐다.

자녀와 함께 우체국 앞을 지나던 한 어머니가 자선냄비를 보고선 지갑을 찾아 딸아이는 “저 지폐 있어요. 제가 낼게요”라며 천원짜리 3장을 넣었다.

자전거를 타던 한 어르신은 잠시 멈춰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자선냄비에 넣은 뒤 빨간 점퍼 차림의 자원봉사자들을 향해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김삼모(88)씨는 “연말에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고 싶었다”며 “모두가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캠페인'이 지난 24일 광주 동구 총장로 우체국 앞에서 열렸다. 사진은 한 80대 어르신이 자선냄비에 지폐를 넣고 있는 모습. /주성학 기자

함들겠지만 옮겨올은 조금이라도 더 따 뜻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선냄비 앞을 지나가던 시민 중 지

폐가 없는 이들은 QR 코드를 스캔한 후 온라인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했으며, 자원 봉사자들에게 굴 등 먹거리를 전

한 이들도 있었다.

온라인 기부에 참여한 이시현(32·여)씨는 “상황이 낙담하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오늘 전한 작은 마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웃어 보였다.

임정환 구세군 자선냄비 광주본부 사관은 “올해는 사회적 혼란과 경기 불황으로 모금액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은 여전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여전하듯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한편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은 1988년 서울명동에서 처음 시작된 후 올해로 36년째를 맞았다.

모금된 성금은 아동,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 노숙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의 긴급구호와 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광주지역 자선냄비 현장 모금은 끝났으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후원엔 캠페인 종료까지 가능하다.

/주성학 기자

남구의회 사무국 예산 ‘쥐꼬리 부활’...내년 위축 불가피

의정·홍보 2억7천여만원 중 1억8천여만원 삭감...예결위, 3천여만원만 살려

광주 남구의회 사무국의 2025년 '의정·홍보' 관련 예산이 쥐꼬리만큼 부활한 채 확정돼 관련 사업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25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 사무국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확정됐다.

본회의 확정 전 남구의회 의회운영 위원회는 사무국이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중 의정·홍보 관련 예산은 ▲의회 경비 지원(1억7천945만원) ▲의정활동 지원(4천380만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6천550만원) 등 총 2억7천875만원이었는데, 심사 결과 의회경비 지원은 9천53만5천원이, 나머지는 '전액' 삭감됐다.

70%가량의 삭감으로 인해 사무국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정활동 홍보

지원 분야에 3천3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남구의회 사무국의 다음 해 의정·홍보 관련 예산은 1억2천191만5천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사무국이 제출했던 규모의 43.73% 수준이다.

일부 부활하긴 했으나, 절반 이상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남구의회 사무국은 대민 홍보 등의 활동과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 삭감 속사정으로 지목된 의원 간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의회 안팎에선 원활한 의정 활동이 가능하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남구의회원은 “예결위 중 사무국이 소명 기회가 부여됐는데, 소명하지 말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갈등을 풀려는 움직임은 없고 '내 편, 네 편' 등 편가르기가 지속되고 있어 무엇을 위한 의회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주성학 기자

‘잇단 일탈’ 서구의회 공식 사과

전승일 의장 “성인지 교육 확대”

광주 서구의회가 최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물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전승일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의원들의 막말과 성희롱 발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광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했다.

앞서 고경애 의원은 지난 12일 회기중 “XXX 없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는데, 이 발언이 SNS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입방아에 올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 의원은 공식 사죄했으나, 욕설 대상으로 지목된 동료 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오광록 의원은 지난달 29일 주민자치 위원들과 동석한 자리에서 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 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주성학 기자

‘보도방이권 다툼’ 보복살인 50대 ‘징역 22년’

법원, 범죄 수익 2억여원 추징 명령도...“계획 범죄 인정”

광주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이권 다툼에 살인을 저지른 5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전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함께 범죄 수익 2억7천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도방 업주인 A씨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지역 내 다른 보도방 업주의 유입을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사건 당일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

절’ 집회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롱하자 A씨는 흥기를 휘둘렀다.

A씨가 비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조롱받는 등 범행 동기가 있었다”며 “흥기를 미리 준비하고 ‘죽이고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을 가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재영 기자

선장 도와 동료 살해한 선원들 징역형

법원, 갑판장 등 3명 징역 1년6개월~5년 선고

선장과 함께 같은 배의 동료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결국 죽게 만든 선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 방조,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갑

판장 등 선원 3명에 대해 최근 징역 1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장 A(45)씨와 함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거나 이를 외면하는 등 범행을 간접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B씨가 사망하기 전 A씨의 지시로 옷을 벗긴 뒤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후 조타실에 옮겨진 B씨는 약 15분 만에 저체온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

이후 A씨 등은 B씨의 시신을 그물에 감고 쇠망치를 매달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B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별도 기소된 A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상태다. /목포·정해선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